

#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현황과 의의\*

강희안\*\*

## 〈차 례〉

1. 문제 제기
2.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현황
3.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의의
4. 결론

## [국문초록]

조선 시대에 유행한 효제 문자도는 표제 한자가 표방하는 사회 이념을 문자와 형상을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완성한 독창적인 콘텐츠이다. 문자도 가운데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현존하는 작품이 비록 여섯 종에 불과하나 문자도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존하는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현황을 모두 정리하고, 어떠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다른 유형의 문자도에 없는 화제가 많아 자료를 양적으로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문자도를 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둘째는 표제 한자의 주제 표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자도의 주제를 단순하고 단일하지 않게 만들어 풍부한 함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문자도 설계자들의 창작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셋째는 다른 문자도를 독해하는 데 단서가 된다. 현재 문자도의 형상과 화제가 모두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사인물화 유형은 다른 문자도의 의미를 풀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문자도 연구에서 고사인물화 유형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으며, 오히려 가장 먼저 연구할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주제어]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 표제 한자, 화제, 효자도, 충자도, 의자도, 제자도, 의자도, 처자도, 문자도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부교수

## 1. 문제 제기

문자도의 연구에서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 유형 문자도는 연구 대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약 50년 동안 문자도와 관련된 활발한 전시와 소개의 기초 위에 문자도 연구도 비교적 왕성하여 단행본과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연구 대상에서 홀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자도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를 제외하고 연구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현전하는 문자도 가운데 기호 유형의 문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자주 전시된 반면,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그 분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일 것이다.<sup>1)</sup> 또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에 적합한 화제(畵題)를 읽어내기 어려운 점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화제의 독해가 어려운 것은 그림 속 글자가 희미하여 읽어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선 시대 문자도 제작자들이 한자를 같은 소리의 다른 글자로 쓰는 와음(訛音), 한자를 잘못된 글자로 쓰는 와자(訛字), 글자를 빠뜨리고 쓰는 결자(缺字) 등의 현상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자로 된 화제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를 정면으로 다룬 글이 2편에 불과한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sup>2)</sup> 2편에서도 화제를 일부 오독하거나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서도 화제 읽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를 펼쳐놓고, 이 유형의 그림들이 문자도 연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를 전부 찾아내어 그 현황을 서술하고, 화제의 내용을 최대한 찾아 읽어내고,

1) 문자도는 표제 한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1) 장식 유형, (2) 고사인물화(이야기 그림) 유형, (3) 기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성, 『효제 문자도의 이미지와 필획의 조합 방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022, 279쪽 참조.

2) 유홍준·이태호는 『문자도』, 대원사, 1993, 103~104쪽에서 동산방 소장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에 대해 도판 해설을 하였다. 진준현은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IV 민화·문자도』,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3, 286~287쪽에서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에 대해 도판 해설을 하였으며, 해설로 쓴 『민화 효제문자도의 내용과 양식 변천』에서도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문자도 연구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기존에 소홀했던 문자도 자료를 발굴하여 알리고, 문자도의 유산을 확장하여 문자도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는 그간 미진했던 문자도의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유도하는 데에도 일정한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 2.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현황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인물을 통해 역사적 ‘이야기’[故事]를 그린 문자도이다.<sup>3)</sup> 인물 이야기를 그려 유가적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은 『오륜행실도』 등에서 보듯 전통적으로 확립된 형식으로, 문자도에서 표제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표제 한자 ‘孝’(효)자 안에 효행으로 유명한 네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 넣었다면, 네 사람의 효행을 글로 써놓은 것과 다름없는 의미가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그림으로 그려졌기에 글씨로 쓴 것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아낼 것이며, 더 인상적으로 기억되고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그림에는 화제(畫題)를 적어놓아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표제 한자, 이야기 그림, 화제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그림과 화제를 통해 덕행의 전범과 주제를 표현하게 된다.

3) 미술사학계에서 통용되는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畫) 용어는 ‘이야기 그림’, ‘서사화’, ‘서술성 도화’, ‘고사화’(故事畫), ‘고실화’(故實畫), ‘고대 사건 회화’ 등으로도 통용되며, 다양한 정의를 있으나 Wen C. Fong은 “일종의 객관적이고 제삼인칭의 표현 형식이다.”고 했다. *Beyond Representation: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3쪽 참조.

그룹	소장처	출판물	출판	예	비고
A 그룹	정찬우	『한국민화결작집』	1976	그림 1	
	선문대박물관	『선문대박물관명품도록』	2003	그림 2	진준현 해제
B 그룹	삼성미술관	『李朝의民畵』	1982	그림 3	
	개인 소장	『한국의채색화』	2015	그림 4	
C 그룹	동산방	『문자도』	1993	그림 5	유홍준·이태호 해제
	현대화랑	『문자도 현대를 만난다』	2021	그림 6	
	기타	『李朝의民畵』 등	1982	그림 7,8	일부 글자

현존하는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효, 제, 충, 신, 인, 의, 예, 지 여덟 글자를 하나의 완전한 세트르 하여 전해지는 작품이 모두 여섯 종이 확인되며, 그 밖에 일부 글자만 남아있는 고사인물화 문자도가 있다. 이들을 그림과 화제의 구성 방식의 유사성에 따라 편의적으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로 보이면 위와 같다.

정찬우 소장본과 선문대박물관 소장본은 구성과 화제가 매우 유사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며, 삼성미술관 소장본과 개인 소장본도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그밖에 동산방 소장본과 현대화랑 소장본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A 그룹은 그림 요소가 비교적 간략히 처리된 반면 화제(畵題)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B 그룹은 장식성이 강한 화려한 채색화에 화제도 적절히 적혀 있어 그림과 문자가 비교적 잘 어우러져 있다. C 그룹은 위의 네 종 이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한 작품들이다.

이들을 그림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자. A 그룹의 문자도는 ‘의자도’(義字圖)를 그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 그 유사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표제 한자 속의 그림 요소는 간략히 처리되고 인물화도 지극히 간술하게 표현된 반면 연속된 둥근 점 속의 한자로 쓰인 화제가 화면의 전면에 흩어져 있다. 정찬우 소장 문자도는 약 50년 전인 1976년에 『한국민화결작집』에 게재되어 공개되었지만,<sup>4)</sup> 이후에 더 이상 공개되거나 전시된 적이 없으며, 이



〈그림 1〉 정찬우 소장 의자도



〈그림 2〉 선문대박물관 소장 의자도



〈그림 3〉 삼성미술관 소장 의자도



〈그림 4〉 개인 소장 의자도

를 논의한 논문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문자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발굴하고 해제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문대박물관 소장본은 비교적 자세한 해설과 도판 설명이 붙어 있어 참고가 된다.<sup>5)</sup>

B 그룹의 문자도 역시 같은 ‘의자도’(義字圖)를 그린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구성과 형식에서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화려한 채색화가 돋보이는 그림 위로 붉은 원의 문양 위에 한자가 이어지는 화제가 있지만 그림의 표현력도 상당히여서, 화제와 고사인물화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문자도는 그동안 자주 소개되었으며, 1982년 『李朝의民書』에 실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sup>6)</sup> 개인 소장본으로 2015년 『한국의채색화』에 실려 있는 작품도 삼성미술관 소장본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유형이 하나의 형식으로 유행했으리라 본다.<sup>7)</sup>

C 그룹의 문자도는 〈그림 5〉부터 〈그림 8〉까지 다양한 시도를 볼 수 있다. 이중에 〈그림 5〉와 〈그림 6〉은 여덟 글자가 온전히 남아 있지만, 〈그림 7〉과 〈그림 8〉의 경우는 의자도를 비롯한 일부 글자만 남아 있다. 〈그림 5〉

4) 정찬우 편, 『한국민화결집집』, 열화당, 1976, 74~75쪽.

5)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VI 민화 문자도편』, 선문대학교출판부, 2003, 286~287쪽.

6) 『李朝의民書』, 講談社, 1982, 그림 번호 304~311.

7) 『한국의채색화』, 에스엔아이팩토리, 2015, 231~238쪽.



〈그림 5〉 동산방 소장 의자도



〈그림 6〉 현대화랑 소장 의자도 A



〈그림 7〉 구라시키 민예관 소장 의자도



〈그림 8〉 현대화랑 소장 의자도 B

의 동산방 소장본은 표제 한자 가운데에 말 탄 관우가 있고 하단에 달아나는 조조를 그렸는데, 화제는 표제 한자 밖 상단 왼쪽에 “화용도에서 조조를 만났으니, 의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풀어주었으랴?”[華容遇操，匪義何釋]라 되어 있다. 〈그림 6〉의 현대화랑 소장본 A는 화제의 몇 글자가 지워져 있지만 “말머리에서 간언을 하니, 의로움은 당당하여 해와 달처럼 빛난다”[○靜馬頭○善○，○義堂堂日月輝]라 되어 있고 말 탄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주 무왕을 가로막고 간언을 올린 백이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의 구라시키 민예관 소장본은 표제 한자 속에 장식적인 문양이 흠어져 있는 가운데, 윗부분에 사당이 있고 세 사람이 제사상을 위에 두고 세 필의 말을 아래에 둔 채 서로 읊례를 하고 있으며, 인물들 바로 위로 ‘도원결의’(桃園結義)라는 화제가 쓰여 있다. 〈그림 8〉의 현대화랑 소장본 B는 매화와 새가 장식 문양으로 사방을 둘러싼 가운데 ‘수양산 백이 숙제’[首陽山伯夷叔齊]란 글자 아래 산과 사당이 그려져 있고, ‘주무왕’[周武王]이란 글자 아래 말 탄 사람과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있어 역시 주왕을 치러 가는 주 무왕을 막아선 백이 숙제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자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른 만큼 고사인물화의 처리와 그림의 구성 방식도 다양하다.

### 3.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의의

문자도 연구에 있어서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문자도 자료를 확충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표제 한자의 주제 표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며, 더구나 다른 문자도에 대한 독해에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1) 문자도 자료의 확장

문자도는 기호 유형 문자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비록 종수가 적지만 기호 유형에 없는 그림 형상과 화제 문자가 상당하여 전체 문자도의 자료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인물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물 관련 그림 형상과 전고(典故)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효자도’(孝字圖)에 나타나는 화제를 모두 모아 등장하는 역사 인물을 시대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눈에 먼저 띄는 것은 효행의 전범으로 왕상과 순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점과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화제를 사자성어 형식 이외에도 서술식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 순임금에 대한 내용에서도 기호 유형은 거문고 연주[彈琴]란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뇌택에서 고기를 잡고 역산에서 밭을 간 구체적인 일을 제시함으로써 효행의 힘겨움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형	순임금	노래자	황황	왕상	맹종	육적	곽거
기호 유형	大舜彈琴		黃香扇枕	王祥雙鯉	孟宗竹筍	陸績懷橘	
	懷橘床琴, 千秋有(流)傳			冰鯉雪筍, 至誠通天		懷橘床琴, 千秋有(流)傳	
	薰琴嘯鳥		黃香廂(床)扇	王祥冰鯉	孟宗雪筍		
	大舜床琴			王祥鯉魚	孟宗泣竹		
	大舜弦琴			開冰躍鯉	踏雪生筍		
				剖冰得鯉	雪裏求筍		

				叩冰魚躍	泣竹筍生		
고사 인물화 유형	舜盡孝漁雷澤			王祥叩(扣)冰得魚	孟宗泣竹		郭巨埋子得黃金
	舜盡孝, 歷山耕, 漁雷澤, 陶河濱			王相(祥)叩(扣)冰	孟宗泣竹		郭巨埋其子掘地得黃金
	大舜耕于歷山	萊子弄雛親側		王祥扣冰出魚	孟宗泣竹		
	舜田于歷山泣, 鳥爲之耘, 象爲之耕			王祥剖冰			
				王祥剖冰, 雙鯉躍出			

그런데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고사인물화 유형이 기호 유형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고사인물화 유형에서 노래자와 괄거가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송 이래 유행한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에 나오는 ‘노래자가 부모를 즐겁게 하다’[老萊娛親]와 ‘괄거가 아이를 땅에 묻다’[郭巨埋兒]와 대응되는 것이어서, 효자도의 고사인물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십사효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가 기호 유형에 없는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은 거의 모든 표제 한자에서 발견된다. 충자도(忠字圖)를 보더라도 기호 유형의 화제에서는 ‘어변성룡’(魚變成龍,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다), ‘하합상하’(蝦蛤相賀, 새우와 대합이 축하하다), ‘곡배단심’(曲背丹心, 굽은 등에 붉은 마음), ‘용방직절’(龍逢直節, 관룡방의 곧은 절개), ‘비간부심’(比干剖心, 비간의 심장이 도려지다), ‘삼려단심’(三閻丹心, 삼려대부 굴원의 붉은 마음) 등으로 비유적인 의미와 함께 관룡방, 비간, 굴원 등의 인물이 제시된다. 그런데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한나라로 돌아가는 소무’[蘇武還漢], ‘넓적다리 살을 자르는 개자추’[介子推割股], ‘들의 강에서 황제를 업고 강을 건너는 육수부’[野水負帝渡江], ‘연 땅의 감옥에 갇힌 송나라 문천상’[宋文天祥囚燕獄], ‘기신이 초나라를 속이다’[紀信誑楚] 등이 추가로 등장한다. 기호 유형의 충자도는 그 주제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sup>8)</sup>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역대의 충신들 이야기



므로 주제 해석에 있어 그 의미가 선명하다. 충신의 사례가 많을수록 ‘충’의 의미는 더 분명해지며, 기호 유형 충자도의 주제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유추할 수 있다.

의자도(義字圖)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호 유형에서 화제는 ‘녹하지당’(綠荷池塘, 녹색의 연잎이 우거진 연못), ‘관관저구’(關關雎鳩, 꾸악꾸악 우는 물수리), ‘화엽작작’(花葉灼灼, 꽃잎이 불타는 듯 붉어라), ‘쌍접화비’(雙蝶和飛, 한 쌍의 나비가 어울려 날다), ‘애피원앙’(愛彼鴛鴦, 저 원앙을 사랑하네), ‘도원결의’(桃園結義 복숭아꽃 핀 정원에서 의형제를 맺다), ‘군신상서’(君臣相誓,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맹서하다), ‘이제지의’(夷齊之義, 백이와 숙제의 의로움) 등으로 제시된다.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도 수양산의 백이 숙제가 등장하지만, 이들 형제가 단순히 은거한 것이 아니라 상나라 말기 주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러 군사를 일으키자, 백이와 숙제가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린 사례는 고사인물화에서 뚜렷하다. 백이와 숙제의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말 고삐를 잡고 간언하는 백이’[伯夷扣馬]의 형상은 <그림 6>과 <그림 8>에서도 반복된다.

또 위에서 언급한 <그림 5>의 동산방 소장 의자도에서 “화용도에서 조조를 만났으니, 의리가 아니면 무엇으로 풀어주랴?”고 쓴 화제는 다른 의자도에 없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의자도에서 ‘의’는 주로 군신, 부부, 봉우 등 세 가지 인륜 관계에서 서로에게 지켜야 할 ‘공정하고 마땅한 도리’를 강조하는데 비해, 화용도에서의 관우의 의리는 베풀어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유가 사상에서 말하는 ‘의’와 약간 다른 의미를 보인다. 관우의 행위에서 표현된 ‘의리’는 중국의 명대 이후는 물론 조선에서도 민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덕목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림 1>과 <그림 2>에는 ‘강호를 유람하는 오자서’[吳(伍)子胥游

8) 이에 대해선 서성, 『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 해석 연구』, 『중국학』, 2021, 502~504쪽에 자세히 다룬다.

江湖也]가 화제로 나타나는데, 오자서가 강호를 유람했다는 고사는 초나라를 떠나 오나라에 갈 때 나루터에서 사공을 만나 초나라의 수배를 빠져나간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기』에서는 간결히 묘사되었으나 『오월춘추』에서는 오자서를 위해 사공이 자신의 죽음으로 오자서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공의 행위가 곧 ‘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역사 인물의 사례를 다양하게 보충하는 기초 위에 표제 한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어, 전체 문자도의 자료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종수는 적으나 문자도 연구에 더 넓은 토대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 2) 표제 한자의 주제 표현 보완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문자도 연구를 하는 데 비단 자료를 양적으로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표제 한자의 주제를 해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기호 유형의 문자도는 사물로써 주제를 환기하기에 비유와 상징의 요소가 강하여 때로 그 의미가 모호한 점이 있는데,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이야기를 통해 주제와 개념을 명확히 나타내어 의미 해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9〉 기호 유형 신자도



〈그림 10〉 선문대박물관 소장 신자도 화제(부분)



〈그림 11〉 개인 소장 신자도 화제(부분)

예컨대 <그림 9>에서 보듯 일반적인 기호 유형 신자도(信字圖)는 1) “상림 원에 봄바람 불 때, 흰 기러기가 편지를 전하다”[上林春風, 白雁傳信]와 2) “요지의 춘궁에서 청조가 편지를 전하다”[瑤池春宮, 靑鳥傳信]는 두 가지 화제와 그림이 주조를 이룬다. 이것만 보았을 땐 편지를 전해준다는 두 가지 이야기만으로는 ‘믿음’이란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모호하다.<sup>9)</sup> 그러나 고사인물화 유형 신자도에서는 기호 유형에서 보이는 화제 내용도 있지만, 믿음과 관련된 인물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어 설계자의 의도를 더 잘 보이고 있다. 선문대박물관 소장본에서는 1)의 내용인 “청조가 요대의 소식을 전하다”[靑馬(鳥)信傳遙(瑤)臺]와 함께 “미생은 믿음을 지키는 선비로 기등을 붙들고 죽다”[尾生守信士抱梁死]와 “효기는 효를 근본으로 한다”[孝己宗孝]는 믿음을 중시한 두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0> 또 개인 소장본에서는 2)의 내용인 “물고기와 기러기가 전하다”[魚雁相傳]와 함께 “관중과 포숙은 마음이 같아 돈을 나누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管鮑同心分錢不貪]는 믿음을 중시한 관포지교의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그림 11> 고사인물화 유형의 방법은 기호 유형에서 사용하는 신(信)자의 인신의(引伸義)인 ‘편지’[信]를 통해 ‘믿음’[信]이란 뜻을 나타내는 전고와 함께 역사 인물의 믿음을 구현한 이야기도 병행하여 표현함으로써 고사인물화 유형이 ‘믿음’[信]이란 주제를 원만히 통합시켜 표현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

제자도(悌字圖)도 마찬가지이다. ‘형제의 우애’[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기호 유형 제자도의 설계자는 ‘할미새’와 ‘병채련’(並蒂蓮)의 형상을 사용하였다. ‘할미새’는 형제애를 표현한 『시경』의 『척령』(鵲鴿)에 나오는 이미지이고, 병채련은 한 줄기에서 두 송이 언뜻이 피는 것으로 우애가 좋은 형제나 부부를 비유하는 사물이다. 그런데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이복 동생 상(象)과 우애롭게 지낸 순임금(象常驅役舜, 大舜呼泣於旻天), 길에서 도적을 만나자 서로 대신 죽겠다고 다툼 후한의 강굉 형제(姜肱弟仲晦(海)季江 遇盜爭死), 효자로도 이름 높지만 형제 사이의 우애로도 이름이 높은 왕상

9) 강희안·서성, 「신자도의 주제 표현 방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022, 148~151쪽.



〈그림 12〉 선대대 소장 의자도

형제(王祥兄弟共相和), 형제 사이가 돈독했던 사마광 형제(司馬光伯康兄弟皆相和)도 제시하여 주제를 구체적이고 선명히 나타냈다.

의자도(義字圖)의 기호 유형도 얼핏 보면 주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12〉의 의자도 상단에 적힌 화제는 “녹색의 연잎이 우거진 연못에, 물수리한 쌍이 조화로운 소리로 우네. 꽃잎이 불타는 듯 붉은데, 복숭아꽃 핀 정원에서 의형제를 맺네.”(綠荷池塘, 關雎和鳴, 花葉灼灼, 桃園結義.)라 되어 있어 마치 도원결의를 하는 광경을 묘사한

한 편의 사언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화제는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결의와 함께 『시경』의 『관저』(關雎)에서 한 쌍의 물수리로 비유한 부부의 의도 함께 나타내고 있어, 결국 부부의 의와 군신의 의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제를 보면 군신의 의가 선명하지만 그림을 보면 한 쌍의 새로 부부의 의가 선명하다. 기호 유형 의자도의 화제로 곧잘 보이는 ‘어울려 나는 한 쌍의 나비’[雙蝶和飛]나 ‘나란히 당에 오른 원앙’[元央(鴛鴦)並堂]도 부부의 의를 비유한다. 여기에서 ‘의자도’(義字圖)의 주제가 ‘의’(義)라고 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부부의 의’가 어떻게 ‘의’의 뜻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는 고사인물화 유형에서 백이 속제와 오자서를 등장시키되 부부와 관련된 고사가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와 관련된 더 많은 사례를 얻음으로써 ‘의’가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나타낸 것이 확인된다. 결국 기호 유형에서 제시하는 의자도의 주제는 고사인물화 유형을 통해 더 선명해지고 원만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기호 유형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표제 한자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나타낸다.

### 3) 다른 문자도 독해의 단서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다른 문자도 독해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자도는 설계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니와 표제 한자의 주제에 대해서도 제작 당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제를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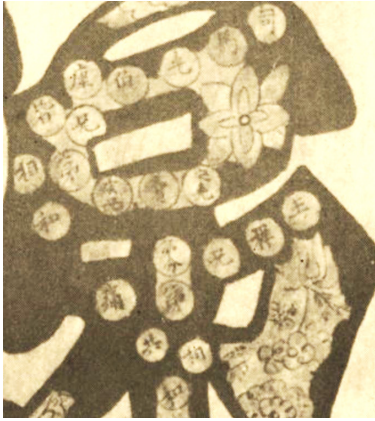


〈그림 13〉 선문대박물관 소장 제자도(부분)

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문자도 연구 초기인 1970년대에 주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간결하고,<sup>10)</sup> 그 이후에도 문자도에 나타나는 각각의 화제와 고사, 기호적 형상이 왜 표제 한자의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심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제와 그림 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독해와 판별에 있어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이러한 독해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선행 연구에서 선문대박물관 소장 제자도(梯字圖)의 화제는 〈그림 13〉과 같이 일부 글자가 지워지거나 희미해서 모두 읽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도판 해설을 쓴 진준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반부가 훼손되어 보수되었기 때문에 글씨 부분도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司馬兄弟相’, ‘伯’

10) 이우환, 『이조의 민화』, 열화당, 1977, 26쪽 : “일명 ‘효제도’라고도 하여, 유교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의가 좋고 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잊지 않고 예의 바르고 의(義)를 지키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써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철순, 『도판해설』, 『한국의 미 9 한국민화』, 중앙일보, 1978, 219~220쪽 :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효(孝)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이 제(悌)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사랑 속에 믿고 의지하고 늘 마음으러라도 서로 교신(交信)함이 신(信)이며, 이런 사랑의 질서를 사회와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한 바가 예(禮)이고 사랑의 의리를 지키를 의(義)로, 청렴한 기풍, 검약한 생활 태도를 염(廉)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치(恥)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실 지나치게 뭉뚱그려져 있으며 일부 개념은 잘못되거나 편견이어서 문자도 이해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림 14〉 정찬우 소장 제자도(부분)

등의 글자가 보이는 점으로 보아서 북송의 관료정치기인 사마광(司馬光) 형제의 돈독한 우애를 소재로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따름이다.”<sup>11)</sup> 그런데 〈그림 14〉의 정찬우 소장 제자도를 보면 이와 대응된 내용으로 ‘司馬光伯康兄弟皆相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선문대박물관 소장의 원래 글씨가 ‘司馬光伯康兄弟相和’이었고 ‘光, 康, 和’ 세 글자가 지워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자도에도 없는 자료인 ‘王祥兄弟共相和’와 ‘宋光義得病兄弟分痛’도 있어,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전고로 왕상 형제와 조광윤 형제의 우애도 추가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 치자도(恥字圖) 가운데 〈그림 15〉의 이세영 소장 치자도는 그 의미를 밝히기 어려웠다. 그림을 보면 낚시줄에 걸린 물고기가 있고 왼쪽 상단에 “십 년 동안 뛰어난 신하를 얻어 부끄러움을 잊는다”[十年鈞璜忘在恥]는 화제가 있으며, 물고기 그림의 아가미 아래로 ‘璜’(황)자 셋이 나란히 붙어 있을 뿐이다.<sup>12)</sup> 그런데 고사도 유형의 자료에서 이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정찬우 소장 치자도를 보면 “제 위왕은 신하를 자랑하여 즐거운 얼굴이나, 위 혜왕은 보물을 자랑하여 부끄러워했다”[齊威王矜寶(臣)而歡怡顏, 魏惠王矜寶(臣)而慚色]는 화제가 있고, 선문대박물관 소장 치자도에도 “위 혜왕은 보물을 자랑하여 부끄러워하였으나, 제 위왕은 신하를 자랑하여 즐거워하였다.”[魏惠王矜臣(寶)而有慚色也, 齊威王矜臣而歡也]란 유사한 화제가 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34년에 제 위왕과 위 혜왕은 보물과 신하 중에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자랑이냐는 주제로 논쟁한 사실이 있는데, 먼

11)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IV 민화·문자도』, 선문대학교출판부, 2003, 286쪽.

12) 『조선민화』, 갤러리조선민화, 2020, 235쪽.

저 보물을 자랑한 위 혜왕이 제 위왕의 신하 자랑에 부끄러워했다. 황옥(璜玉)을 낚는다는 의미의 '조황'(釣璜)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신하를 얻는다는 뜻인 점을 생각하면, 그림은 “제 위왕이 장기간 많은 현신을 임용하였기에 위 혜왕과 대비하여 볼 때 보물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3)</sup> 결국 이 그림은 제 위왕처럼 현신을 많이 임용하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 ‘부끄러움’[恥]이란 주제를 반면고사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고사도 유형의 자료가 없었다면 <그림 15>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림 15> 이세영 소장 치자도



<그림 16> 현대화랑 소장 충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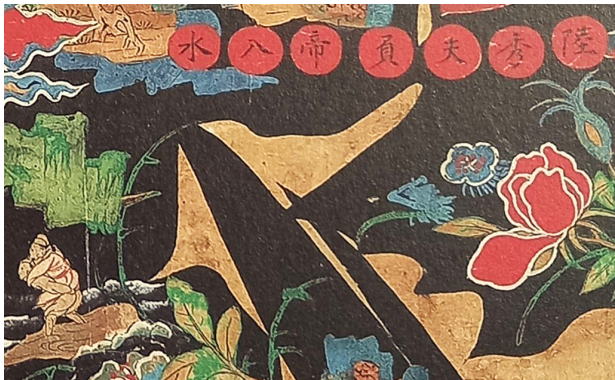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화제뿐만 아니라 그림 형상도 다른 문자도의 그림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그림 16>의 현대화랑 소장의 문자도에 그려진 위 아래 두 인물의 형상은 이것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13) 서성, 「효제 문자도의 이미지와 필획의 조합 방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022, 282~284쪽.

어렵다. 화제도 많이 지워져 있어 읽기 어렵다. 그런데 <그림 17>의 삼성미술관 소장 충자도에 ‘넓적다리 살을 자르는 개자추’[介子推割股]란 화제 아래 자신의 허벅지를 흰 칼로 자르는 개자추가 있는데, 이 형상은 <그림 16>의 윗부분에서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르는 사람의 형상과 일치한다. 또 <그림 18>의 개인 소장 충자도를 보면 ‘육수부가 황제를 업고 물에 들어가다’[陸秀夫負帝入水]는 화제 아래 왼쪽에 어린 황제를 업고 바다에 들어가는 육수부의 형상이 있는데, 이는 역시 <그림 16>의 아랫부분의 형상과 일치한다. 이렇게 하여 <그림 16>의 두 인물 형상은 다른 고사인물화 유형 충자도를 통해 개자추와 육수부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삼성미술관 소장 충자도(부분)



<그림 18> 개인 소장 충자도(부분)



위와 같이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는 비록 여섯 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내용은 상당히 풍부하고 문자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의의가 크다. 현재 문자도의 제작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편년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호 유형과 고사형 유형은 조선 중·후기에 같이 유행했으리라 가정되기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 유형 문자도를 연구할 때 당연히 고사형 유형 문자도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조선 시대에 유행한 효제 문자도는 표제 한자가 표방하는 사회 이념을 문자와 형상을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완성한 독창적인 콘텐츠이다. 이러한 문자도를 장식 유형, 고사인물화 유형, 기호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기호 유형의 문자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구에서도 고사인물화 유형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은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가 비록 현존하는 작품은 여섯 종에 불과하나 문자도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의 현황을 모두 정리하면서, 여섯 종 사이의 유사성에 따라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이해했으며, 어떠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문자도에 대한 발굴과 전시와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그림 속 각각의 화제를 비롯하여 고사인물화와 기호적 형상이 왜 표제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고사인물화 유형의 문자도는 표제 한자가 표방하는 이념, 즉 언어적 서술을 회화적 형상으로 대응시키는 형식이었다. 더구나 화제의 내용이 모두 역사 인물에 대한 전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가 문자도 연구에 있어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였다.

첫째는 다른 유형의 문자도에 없는 자료도 다수 있어 자료를 양적으로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문자도를 조감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효자도에서 노래자와 광거의 사례가 추가되고, 충자도에서 소무, 개자추, 육수부, 문천상, 기신의 사례가 추가되어 문자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둘째는 표제 한자의 주제 표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자도의 주제를 단순하고 단일하지 않게 만들어 풍부한 함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제자도에서 기호 유형은 인신의(引伸義)인 ‘편지’로 ‘믿음’[信]이란 뜻을 끌어낸 데 비해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관중과 포숙, 미생과 효기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의자도에서 부부의 애정을 상징하는 새의 형상이 주로 등장하지만 고사인물화 유형에서는 군신의 의와 형제의 의가 함께 강조되어 균형을 맞춘다.

셋째는 다른 문자도를 독해하는 데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자도의 개별 형상과 화제가 모두 해석되지 않는 현재 고사인물화 유형은 다른 문자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제자도의 화제를 통해 다른 문자도의 지워진 화제를 복원할 수 있고, 치자도의 화제를 통해 다른 문자도의 물고기 그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충자도의 그림을 통해 다른 문자도의 인물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문자도 연구에서 고사인물화 유형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으며, 오히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대상이란 사실이 분명해진다.

## ■ 참고문헌

- 『문자도 현대를 만나다』, 갤러리현대, 2021.
-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IV 민화·문자도』, 선문대출판부, 2003.
- 『李朝の民畫』, 講談社, 1982.
- 『조선민화』, 갤러리조선민화, 2020.
-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 『한국의 미 9 한국민화』, 중앙일보, 1978.
- 『한국의 채색화 - 책거리와 문자도』, 에스앤아이팩토리, 2015.
- 유홍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
- 이우환, 『이조의 민화』, 열화당, 1977.
- 정찬우 편, 『한국민화걸작집』, 열화당, 1976.
- Wen C. Fong, *Beyond Representation :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8th-14th Century*,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2.
- 강희안·서성, 『신자도의 주제 표현 방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022.
- 서 성, 『‘어변성룡’형 총자도의 주제 해석 연구』, 『중국학』, 2021.
- \_\_\_\_\_, 『효제 문자도의 이미지와 필획의 조합 방식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2022.

##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Munjado's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Kang, Hee Ahn\*

Hyojae Munjado(word picture), which was popular in the Joseon era, is a creative content that visually completes the social ideology advocated by the headword chinese character(표제 한자) by combining letters and figures. In Munjado,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Munjado(고사인물화 유형 문자도) even though there are only six kinds of existing works, but i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Munjado. Organize all the current situation of existing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Munjado, in what ways it is significant, I presented concrete examples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of all, there are many the picture titles(회제)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ypes of Munjado, and they play a role in quantitatively increasing the materials. This gives researcher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e Munjado with more material. The second is to complement the thematic expression of the headword chinese character. This helps to keep Munjado's subject matter simple and unconventional, eliciting rich meaning, and lets us know what Munjado desiner's creative intentions are. Thirdly, it is a shorthand for understanding other Munjados. At present, the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Munjado may be the key to unlocking the meaning of other Munjados in the situation where both the picture titles of Munjado and the picture titles have not been clarified. Looking at these points, the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

\* Professor Kang, Department of Basic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Daejeon

Munjado does not seem light at all, but rather, it is the first contrast to be studied in Munjado.

**Key words:** narrative figure painting type Munjado, headword chinese character, the picture titles(畫題), 'Chung'(忠) word picture, 'Yeom'(廉) word picture, 'Ui'(義) word picture, Munjado(word picture)